

아산나눔재단, 창업생태계 분석 보고서 발간

스타트업·벤처기업 고민·산업 이슈 담아 다양한 분석으로 생태계 이해도 높일 것

아산나눔재단이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AER)'의 창업생태계 보고서인 '소셜임팩트 주류화'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는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실제 고민을 담은 케이스 스터디와 창업생태계 변화가 되는 산업 이슈 등을 분석한 보고서로 구성되며, 보고서는 이번에 발간된 것이 처음이다.

최근 비영리 단체뿐만 아니라 '마리모드'와 같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및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임팩트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재단은 첫 번째 보고서의 주제로 '소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의 창업생태계 보고서 '소셜임팩트 주류화'

자세히 설명한다. 특히 임팩트 창출을 지향하는 실제 조직을 중심으로 지표와 측정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등을 살펴보며 독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아랑 아산나눔재단 기업가정신 교육팀장은 "아산 기업가정신 리뷰가 펴내는 첫 번째 보고서는 현재 창업생태계와 소셜센터 전반에서 임팩트 창출을 지향하는 모든 조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창업생태계 내 다양한 이슈를 분석한 보고서를 펴내 더욱더 많은 이들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설임팩트'를 선정했다. 집필진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재직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보고서에서는 소셜임팩트를 이해, 정의, 측정, 관리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KT&G 사회혁신 창업포럼 '상상 서밋' 성료

창업 생태계 발전 방안 모색

KT&G가 사회혁신 창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창업가 육성 성과를 공유하는 '제2회 상상 서밋(Summit)'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상상 서밋'은 창업지원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관계자들과 사회혁신 창업가를 꿈꾸는 지원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KT&G의 청년 창업지원 사업인 '상상스타트업 캠프' 소개, 기조강

연, 사회혁신 창업 우수팀 발표, 동시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혁신가의 다양성'을 주제로 사회혁신 창업가의 범위 확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에 맞게 기조 강연에서는 인문학 관점(과거)·시장 관점(현재)·기술 관점(미래)에서 바라본 사회혁신 창업과 사회혁신가의 중요성 등 총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주요연사로는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과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교수, '알쓸신잡3'에 출연한 바 있는 김상욱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등이 참



지난 12일 진행된 KT&G '제2회 상상 서밋' 행사 전경

디지털 사각지대 간한 노인들

기자 수첩



김민서
(유통&라이프부)

드' 키워드에 '비대면 서비스화'가 선정됐을 정도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맥도날드, 롯데리아는 전 체 매장 가운데 절반 가량에 무인 기계인 키오스크가 도입됐고,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곳도 다수다.

식당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영화관, 은행, 기차역 등에서도 같은 흐름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매장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화(化)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것이다.

디지털화(化)는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다. 이전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한 노인 소비의 소외를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 설만해도 코레일 기차표 예매 비율 중 93%가 온라인이었다. 기차에선 노인들은 서서, 짚은이들은 앉아서 가는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한다. 노년층은 젊은층에 비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기에 이에 발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편리함 속에 가려진 디지털 사각지대. 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때다.

/min0812@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돼지생의 직업



2019년 천간이 되는 기(己)는 오행상 토(土)에 해당하고 색상은 누런색으로서 황금색이나 황토색으로 보고 있기에 황금돼지띠라 칭하기도 한다. 해생(亥生)은 대체로 배고픈 일은 없는 식복을 타고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금은방에서도 다른 동물과 달리 돼지만큼은 황금돼지상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니 12간지 중에 돼지를 재신(財神)으로 여기는 이유가 이해가 된다. 인간의 인식이 보편성을 띠고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이는 집단의식과 무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만사가 마음작용의 투영인 것을 생각한다면 돼지꿈이 영락없는 재운을 암시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보는 검은 돼지꿈을 꾸도 그런데 하물며 재물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황금색의 생년을 갖는다는 것은 적어도 식복만큼은 타고났다고 본다. 이는 회사원 보다는 사업가적인 성향이 강하고 천간에 편재성이 오면 더욱 그러하다. 앉은 머리자리에 편재를 놓아 일찍이 사업성이 발달한다. 돼지의 저돌성을 고려해본다면 사업을 하더라도 불같이 재물이 일어나는 아이디어 사업이 궁합이 맞는다. 따라서 투기성도 높은 사업이 될 확률이 적지 않다. 반면에 스스로 꾸준히 참을성 있게 몰두하는 성격도 있다. 인수를 깔고 앉아 있는 경우는 연구나 학문에도 잘 맞는 부분이 있으니 사주명조에 문창성이 있는 돼지는 학문분야를 평생의 길로 삼아도 천직이 될 수 있다. 천간을 목(乙木)은 자유로운 영혼 뛰어난 언변으로 표상된다. 일주가 혹시 을해(乙亥)라면 남에게 상처주지 않고 예쁘게 말을 하니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면 바로 이러한 사주가 될 것이다. 계해(癸亥)라면 물의 유연성이 따를 자가 없으나 때로는 전혀 속을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적응력은 좋으니 컨설팅관련이나 유통업을 직업으로 한다면 역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어떤 천간이 오느냐에 따라 그 표상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달라지는 특질을 지니고 있다. 즉 자기주장에 대한 표현 등이 약하여 유약하게 비춰질 수도 있으나 재물에 대한 태도만큼은 적극적인 것은 돼지띠의 특질이 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루어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9		5		
4				8		2		
7	2	4		1		9		
	6	2			1			
8						6		
3	9			1	7			
9		3	4	6				
6							5	
	7	1		9	4			

	7		3		2			
9		6	4			8		
4					1		3	
8				6				
5	1		7			9	2	
		9				5		
1	2						5	
5			9	3		1		
	6	5		7	9	2	4	

스도쿠 정답								
2	3	7	1	5	6	9	4	8
1	6	4	9	8	7	2	3	5
9	5	8	3	2	4	6	7	1
3	4	9	8	6	1	7	5	2
8	2	1	5	7	3	4	9	6
5	7	6	2	4	9	8	1	3
4	1	3	7	9	2	5	8	4
9	3	6	4	5	1	7	2	8
7	4	8	2	9	3	4	1	6
1	4	2	8	6	7	9	3	5
6	7	3	9	2	4	8	5	1
5	1	4	3	7	8	6	9	2
2	8	9	5	1	6	3	7	4
3	9	1	6	4	2	5	8	7
8	6	7	1	3	5	2	4	9

문제 제공=보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이장규

증정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기00206 2002년5월28일 제41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기50111 2017년3월09일 제0243호